
한국방송(KBS) 정연주 사장

한국방송은 2004년부터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을 실시하여 한국어 능력 시험 성적을 신입 사원을 뽑는 제1차 기준으로 삼아 국어 능력을 영어 능력보다 우선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방송인의 국어 능력 향상을 꾀함은 물론 국민의 국어 존중 의식을 드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새국어생활’ 편집진에서는 한국방송 정연주 사장을 만나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 편집자 주

“한국방송은 우리말을 지켜야 하는 사회적인 의무와 책무가 있는 기관이니 한국어를 지키는 중심 구실을 해야 합니다. …… 미국은 자기네 영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사회 제도로 모든 중요한 시험의 한가운데에 항상 영어 시험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배워야지요.” … 인터뷰 내용 중에서

참석자 : 정연주(한국방송 사장)

유재원(한국외국어대학교 그리스발칸어과 교수)

지영서(한국방송 KBS한국어팀 팀장)

김문오(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새국어생활’ 편집·발간 담당자)

정종희(지식공작소 ‘새국어생활’ 편집 담당자)



▶ 인터뷰 모습(오른쪽이 정연주 사장, 왼쪽은 유재원 교수)

한국어 능력 시험으로 사회 불평등을 해소

유재원 제 첫 질문의 요지는 한국방송 직원 채용 시험에서 왜 영어를 몰아내고 한국어를 집어 넣었느냐 하는 겁니다.

정연주 그건 참 좋은 질문인데요.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중요한 계기들이 있는데 그 계기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너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해요. 가령 대학 입학시험을 치른다거나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요. 저 자신도 겪어 봐서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 개인을 돌아보면 저는 영어로 상당히 덕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 사회 전체로 봤을 때 공평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영어라는 외국어 하나가, 많은 것 중의 하나의 요인이면 괜찮은데, 하나의 지배적인 요인이 돼 버리는 것은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와는 또 달리 요즘 와서는 영어 점수도

어떻게 봐서는 소득하고 상관관계가 있게 마련이에요. 부잣집 애들, 연수 갔다 오면 영어는 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토플¹⁾ 준비할 때 듣기 시험에서 점수 많이 빼졌거든요. 쓰는 거 이런 건 다 잘하는데 듣는 건 외국 가서 6개월 생활하고 온 사람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하고 많은 차이가 납니다. 1년 있다 오면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렇다면 외국에 연수를 갔다 올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생기면 매우 불공평한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불공평성의 요인이 안에 들어 있는 그런 것이, 특히 시험이 중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지배적이고 중요한 요인이 된다면 그건 매우 불공평한 과정이죠.

유재원 사장님은 한동안 미국권에서 생활하셨는데 거기서 경험하신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시험을 생각하신 건가요?

정연주 그건 아닙니다. 제가 쪽 살아오면서 느낀 점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구조적인 불공평, 구조적인 차별의 문제가 있거든요. 미국도 있죠. 흑인들이 구조적으로 차별당하고, 여성들이 구조적으로 차별당하고, 우리 사회도 구조적으로 차별 많습니다. 지역주의, 학벌주의, 성 차별,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차별이 많은데 거기에 영어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가세해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를 할 때 보면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영어에 크게 의존합니다. 가령 KBS 같은 경우에 한 번 모집하면 만 명 정도가 지원하거든요. 그럼 만 명을 다 평가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일차로 거를 수 있는 방법이 토익²⁾ 시험 성적하고 대학 성적을 보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
- 1) 토플(TOEFL←[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외국어로서의 영어 능력 검정 시험. 미국 등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에 유학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영어 시험. (주(註)는 편집자가 달았음. 이하 같음.)
 - 2) 토익(TOEIC←[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중점을 두고 일상생활이나 국제 업무 등에 필요한 실용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토익 시험, 영어 표준 시험이라는 것이 비중을 너무 많이 차지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일차 관문을 통과하는 매우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또 그것이 뒤에까지 계속 영향을 줍니다. 가령 토익 점수 900점 넘었다 하면 그 뒤에까지 죽 이어지는 그것도 사실 잘못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중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고민했는데, 한국어 시험을 치르게 하면 참 좋겠다는 뜻밖의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고 또 우리 아나운서들이 꾸준히 그 문제를 연구해 왔기에, ‘아! 만약에 한국어를 토익처럼 그렇게 표준 시험으로 개발해서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영어의 비중을 현실적으로 확 줄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 한겨레신문에 있을 때 입사 시험에서 영어 비중을 줄여 봤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거기서 2년 동안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비중이 높을 때하고 그 비중을 떨어뜨렸을 때하고 그 결과 나타나는 사람들의 구성이 매우 다릅니다. 특히 KBS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하거든요.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영어만 너무 강조해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제적으로 불공평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유재원 지역적으로도 서울 쪽이 강하거든요.

정연주 아, 물론이죠. 서울 중에서도 강남이 강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극복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KBS의 중요한 일 중의 하나죠.

유재원 도입할 때 어려움이나 반발 같은 건 없었습니까?

정연주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서 그럴 뿐이지 생각을 하고 일단 시작을 하면, ‘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지지하게 되지요.

유재원 사내에서도 그런 반응이요?

정연주 사내에서도 전혀 저항이 없었고요. 이 아이디어를 맨 처음에 누가 저한테 줬냐 하면 개혁 추진단입니다. 우리 회사가 개혁 추진단이란 걸 구성했는데, KBS를 개혁하는 기본 틀을 거기서 다 짰어요, 1년 동안. 그때 개혁 추진단한테 제가 “우리, 사람들 새로 뽑는 방식도 좀 바꾸자. 올해부터라도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영어 비중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한국어 능력 시험’을 도입하자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보니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로 도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게 개발된 게 있었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응시생 수요가 많아서 그쪽에서도 우리 응시생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KBS한국어팀이 1983년부터 활동을 하면서 엄청난 업적을 쌓아 온 게 있으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하자’ 그렇게 맘먹고 전력을 투구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영어의 비중을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도 해소하고 또 다양한 사람을 뽑고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봤습니다. 또 한국방송은 우리말을 지켜야 하는 사회적인 의무와 책무가 있는 기관이니 한국어를 지키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능력 시험 문제가 처음 일 년 동안 지영서 KBS한국어팀장 중심으로 해서 시험 문항을 개발하고, 지난번(2004년 8월 8일)에 신입 사원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고, 그 결과물이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다들 평가를 합니다.

유재원 좋다고요?

정연주 예. 사내뿐만이 아니고 사외에서도 참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와서 참 많은 비판을 여기저기서 받아 왔는데 아마도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은 게 이거 같습니다.

유재원 지금 엠비시(MBC)나 에스비에스(SBS)도 도입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정연주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언론 기관 다 해야 되고요. 저는 언론 기관뿐 아니라 앞으로 사법 시험, 행정 고시, 아니 모든 국가 시험에서도 한국어 능력 시험과 같은 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미국 이야기 하셨는데, 미국은 에스에이티(SAT)³⁾도 그렇고, 대학원 들어갈 때 치르는 지알이(GRE)⁴⁾, 지엠에이티(GMAT)⁵⁾도 그렇고, 또 판검사, 변호사 시험도 그렇고, 전부 보면 항상 과목에 핵심적인 거는 버벌(verbal 또는 verbal test)이라고 해서 전부 영어 시험이에요, 영어 시험. 그게 항상 핵심입니다.

유재원 그리스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언어 능력을 굉장히 비중 있게 봅니다.

정연주 그게 핵심입니다. 언어 시험이란 게 단순한 언어만 보는 게 아니고 결국 그거 가지고 사고의 능력까지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자로 미국에 좀 오래 있으면서 보니까 미국은——영국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아마 영국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자기네 영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사회 제도로 모든 중요한 시험의 한가운데에 항상 영어 시험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배워야지요.

국어 문화 이해력도 평가해야

-
- 3) 에스에이티(SAT←[Scholastic Aptitude Test]): 미국에서 실시하는 대학 진학 적성 검사.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함.
 - 4) 지알이(GRE←[Graduate Record Examination]): (미국) 일반대학원 입학 자격 시험.
 - 5) 지엠에이티(GMAT←[Graduate Management Admissions Test]): (미국) 경영대학원 입학 적성 시험.

유재원 이번 한국어 능력 시험에 출제된 문제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가령 너무 어려웠는지…….

정연주 아닙니다. 990점 만점에 평균이 한 500점 나왔거든요. 평균이 500점 나왔고, 평균 주변으로 정상 분포가 나왔고, 그다음에 최고 점수가 925점 나왔고, 꼴등이 몇 점이던가요?

유재원 영점도 있습니까?

지영서 영점은 없었어요. 가장 낮은 점수로는 10점 미만…….

정연주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정상 분포를 보였고, 그 나름대로 적절한 변별력이 있었고, 듣기, 말하기까지 포함해서 다섯 가지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하게 우리말 능력을 시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재원 혹시 국문과 출신들 성적을 한번 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보신 적이 있어요?

지영서 시험 유형별로 좀 차이가 있었어요.

정연주 인문 계열 출신자들이 아무래도 강해요.

지영서 인문 계열 출신자들이 유리한 과목이 있고요. 그러나 쓰기나 창안 같은 경우에는 사회 계열 출신자들이 강해요.

유재원 제가 좀 문제를 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제가 짐작하는 바로는 국어학이나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들, 주로 국어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출제 위원으로 참여한 거 같아요.

정연주 고등학교 국어 교사도 있어요.

유재원 우리가 언어를 평가한다고 했을 때 문화가 들어가야 하는데 문화 쪽을 빠뜨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어 문화 쪽을 담당하기에는 출제 위원이…….

유재원 토익, 토플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생활을 잘 알아야만 풀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은 아무래도 국어 시험 위주로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게 문제를 본 다음에 내린 제 평가예요.

정연주 너무 언어적 면에 치중했다는 말씀이죠?

유재원 정서법 쪽으로 많이 가 있고, 소위 생활양식이나 사고방식이 나 한국적인 걸 이해했을 때 더 문제를 잘 푼다든가…….

정연주 저희가 작년에 첫해로 한 번 쳤고, 올해 두 번 치고, 내년부터는 일 년에 네 번을 치려고 하는데, 예정은 그렇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시험 문제를 어떻게 정말 잘 만드느냐 하는 것인데, 그건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유재원 어쨌든 한국적 사고방식이나 한국적 문화를 잘 이해할 때 성적이 올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국어학 실력이 있을 때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같습니다.

정연주 두 가지가 다 중요하겠죠.

유재원 예,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지금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습니다.

정연주 역사까지 하면 참 좋겠죠.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면 초점이 흐려질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국어 실력을 판별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말을 배우자는 것이 첫째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초점을 저희는 거기다 두고 있거든요.

KBS 월드: 한류를 한국어 학습으로 연결해야

유재원 이번에는 한류(韓流)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지요. 한류하고 한국어 능력 시험하고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게 있는지요? 한류를 타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몰려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건지 KBS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가령, 대본 같은 걸 다 그 쪽에 보내 주고…….

정연주 KBS 월드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전 세계로 위성으로 뻗어가고 있거든요. 일본에도 이제 곧 들어갈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 KBS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말을 직접 듣게 합니다. 자막은 일본어로 처리하고——미국이면 영어로 처리하고——목소리는 그대로 우리말이 전달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배용준 씨 나오는 ‘겨울 연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더빙으로 듣다가 우리말 그대로 듣고 자막 처리 하는 것을 좋아한다거든요, 일본 진짜 팬들은. 그렇게 KBS 채널을 많이 보게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저는 그게 결국 우리 문화를 외국에 소개하고 더 확산되도록 하는 데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그쪽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고 사정이 안 좋아서 저희 예산이 뿔뿔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해외 진출 문제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유재원 제 아이디어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영화를 통한 영어 회화처럼 방송국을 통한 한국어 회화 프로그램을, KBS에서 아예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게 어떨까요? 아무래도 방송이니깐 좀 더

좋은 거 같아서요. 다른 데는 좀 어려울 거 같고…….

정연주 우선 KBS 월드를 많은 외국인들이 보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와 우리 문화 콘텐츠⁶⁾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게 되면 저절로 우리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될 것이거든요. 그 수준까지 가면 ‘아, 한국어 배우고 싶다’ 하는 필요성이 생길 겁니다. 저절로 가령 일본의 ‘겨울 연가’ 팬들 사이에 한국어 배우는 붐이 일어나듯이, 억지로 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분위기를 끌어다 놓으면 아마 우리말 수요가 저절로 생길 거라고 봅니다. 제가 미국에 오래 있으면서 우리 애들도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민 2세, 3세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 아이들은 우리와 같은 이민 1.5세대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말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크면서 자기 뿌리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말에 애정을 갖게 되고 우리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제2외국어로 우리말을 선택해요. 미국에서 그런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가 생기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말 수요는 1차적으로는 6백만 해외 동포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각지에 우리 한국인들이 하고 있는 방송이 있고, KBS가 KBS 월드를 전 세계에 더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면 우리말에 대한 공부를 하겠다는 열기는 더 높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KBS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방송을 통해서 우리말 강의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국내에서 우리말 지키는 게 더 급합니다. 그래서 ‘바른말 고운말’도 시간을 늘렸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5분으로 했죠?

지영서 가을 개편부터입니다.

6) ‘콘텐츠’는 각종 디지털 정보나 자료를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다. 이 말을 다듬은 말로는 ‘꾸림정보’가 있다. ‘꾸림정보’라는 말은 ‘모두가 함께 하는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 사이트’-국립국어원이 동아일보, 동아닷컴, 케이티(KT) 문화재단과 함께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일반 국민의 제안과 참여로 선정된 말이다.

정연주 그것도 우리가 그동안에는 텔레비전에서 2분씩 했거든요.

유재원 다른 나라 방송 보다가 KBS, 한국 방송 보면 제일 부족한 것이 뭐냐 하면, 아주 한국어를 재밋게 능수능란하게 하는 폭넓은 토크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정연주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재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나와서 종합무진으로 모든 주제에 대해서…….

정연주 미국에 조지 카웨이라고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어요. 이 친구가 코미디 실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 같은 뜻을 가진 형용사를 열 개를 쏟아 냅니다, 속사포처럼. 미국 사람들도 깜짝 놀랍니다. 그 언어 감각, 영어에 대한 감각!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전을 가지고 평생 공부한 친구예요. 책을 수없이 읽었고. 그러니까 영어의 아름다움, 영어의 그런 미묘함 같은 걸 전달하는 데 이 친구는 언어학자보다 더 나아요. 그런 친구가 기가 막힌 코미디언이거든요. 제가 정말 그 친구 프로를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에는 코미디언뿐만 아니라 우리말에 대해서 그만큼 깊이 있고 그만큼 폭넓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느냐? …… 없어요.

유재원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정연주 그게 훈련도 안 돼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접도 안 돼 있고. 제가 이번에 설 연휴 기간에 집에서 KBS 텔레비전을 보다가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게 있었습니다. 뉴스 속보나 그 비슷한 게 화면 아래쪽에 자막으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대설 주의보, 큰 눈이 내릴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준비 잘 해라,

그래서 큰 사고 미리 막읍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방송 말인데 “미연에 방지합시다.”라고 해요. “미리 막읍시다.”라고 하면 될 걸 왜 “미연에 방지하자.”라고 그러니까.

지영서 사장님이 참 싫어하시는 말이에요.

정연주 어릴 때부터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KBS 입사 시험으로 이런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게 하고 이게 사회로 골고루 번지면 우리말에 대한 공부도 더 하게 되고 관심이 더 있을 것이고 그러면 더 아름다운 표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미연에 방지하자’는 저 따위 말은 안 쓰게 되겠지요.

유재원 제가 출제 위원이면 ‘제고하다’ 같은 말을 쉬운 한국어말로 바꿔 쓰는 능력을 볼 거 같아요. 어려운 한자 말을 주고요, 그걸 쉬운 말로 고쳐 쓰는 능력은 꼭 보아야 할 거 같아요.

외래어 순화는 열린 자세로

김문오 방송에 외국어가 몇 번 나오면 그게 외래어가 돼 버립니다. 디엠비(DMB)처럼 외국에서 신기술로 도입되는 용어들에 대해 번역어든 순화어든 발 빠르게 대응해서 만들어 낼 자체 역량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다면, 여러 전문가 망을 확보해서 이런 용어들을 순화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정연주 그건 KBS 차원에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문제입니다. 이런 발언하면 친북 인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노력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북한 관리들하고 취재 때문에 종종 접촉했는데, 놀라운 건 그쪽은 국가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그런 걸 합니다. 그때 미군 헬리콥터 조종

사가 북한으로 건너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 ‘헬리콥터’란 말 안 씁니다. ‘직승기’라고 합니다. 바로 위로 올라간다는 뜻으로요. 순 우리말로는 도저히 안 나오니까 ‘직승기’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국가적인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김문오 국립국어원에서든 전문 용어의 순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국가 기관에서 노력을 하더라도, 방송국 같은 데에서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는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정연주 저는 또 그런 면에서 지나치게 모든 것을 다 우리말로 해야 한다는 것에는 반대입니다.

유재원 북한 예를 드셨는데요. 북한에서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받으면, 자기들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정연주 저는 무리하게 억지로 우리말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정말 못 바꾸는 ‘텔레비전’ 같은 거는 그대로 쓸 수밖에 없다고 봐요.

유재원 그런데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혼란이다. 지금 워낙 엄청나게 외국 문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제 교류가 이렇게 많지 않았고 통신이 발달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무엇을 가지고 외래어를 거르고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은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요.

정연주 우리말을 지키고 가꾸는 건 매우 중요한데, 이게 지나쳐서 국수주의적인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가령 ‘디엠비(DMB)’ 같은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DMB’가 무슨 뜻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죠. 방송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바꿔 놓은 말이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이거든요. 우선 ‘디지털’을 우리말로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고, ‘멀티미디어’를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고……. 답을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말로 답는 노력을 하되 그것을 백 퍼센트 다 바꿔 버리자 하면, 자칫하면 우리가 너무 폐쇄적이 되거든요. 균형점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문오 ‘DMB’라는 말도 처음 나올 때는 간단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 방송이 하루에도 여러 번 나가면 나중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못 들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식 격차가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정연주 우리말 표현의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을 영어로 ‘디지털 디바이드’⁷⁾라고 하잖아요. 디지털 시대에 그런 지식과 정보 등으로 해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도 교육을 해야 하고 본인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건, 앞으로 두고두고 더 크게 차이가 날 텐데, 사회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야죠. 근데 방송이 또 그런 재교육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령 디지털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아직 많아요.

김문오 현재 KBS의 ‘우리말 겨루기’ 프로그램 같은 데서 새말 만들기 코너 같은 걸 만들어서 잘 활용을 하면 아주 좋은 대안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 텐데요.

방언은 보존하고, 표준어는 보급하고

7)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정보 격차’. 정보와 기술이 중요한 디지털 시대에 정보에 접근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부터 이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다.

유재원 그런데 지역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KBS가 한국어 표준 말 보급을 하는데, 매스 미디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지역의 문화가 죽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의 문화, 지역의 말도 지켜야 할 굉장히 귀중한 자산인데, 거기에 대해선 KBS가 크게 마음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정연주 우리가 지금 전국에 총국이 열 개가 있고 지역 방송사가 모두 합쳐서 열아홉 개가 있습니다. 방송이 다 안 보여서 그렇지 지방에 가면 지방의 독특한 문화를 지키고 소개하고 하는 일에 KBS 지역국들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만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문화의 세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가치를 본사뿐만 아니라 지역국 구성원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마 여행을 다니시거나 지역에 가서 며칠 지내면서 지역에 있는 방송사들 보면 지역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지금 매일 저녁 6시 ‘6시 내고향’ 프로에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들, 토속적인 걸 소개합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또 토요일에 ‘싱싱 토요일’이라고 농촌 풍경 한 시간씩 보여 주는 프로도 있고 아마 KBS는 채널이 많아서 전국 곳곳에 있는 문화에 대한 소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역 언어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12월 초에 중국을 다녀왔는데요. 중국은 가령 광둥성 같은 경우에 광둥성 언어가 따로 있어서 베이징에 있는 중국 사람이 가서 못 알아 듣습니다. 그만큼 아주 딱 나라 언어예요. 우리도 가령 제주도 가면 제주도 방언 거의 못 알아 듣잖아요. 표준어는 필요합니다. 표준어는 필요하고 각 지역에 있는 사투리의 경우에는 하나의 문화적인 가치로서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강조돼서 표준어랑 섞이면 안 되죠. 표준어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유재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송과 관계없이 어떤 자료로서 녹

음을 한다든가…….

정연주 그건 필요하죠. 문화적인 거니까.

유재원 지국 같은 데를 통해서 하면 가장 효과적일 거 같은데. KBS 지국하고 협조가 된다면 훨씬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지영서 제주도에서는 제주 방언 대회를 합니다. 그것을 제주 총국에서 녹화해서 특집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사실 사업 계획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총국이 활용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정연주 KBS를 자꾸 단편 조직으로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KBS 이런 거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에서 알면 얼마든지 하는데, 모를 경우 밖에서 얘기하면 (받아들일) 마음의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KBS를 활용한다는 자세도 필요하고요. 여기가 단편 있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열려 있기 때문에 가령 어떤 연구원이든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우리 각 프로그램 만드는 분들이야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어디든지 쫓아갑니다. 사실 몰라서 못가지, 알고 안 가지는 않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정종희 어느 나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표준어가 보급되면서 방언이 사라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문화적인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는지, KBS가 방언의 보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구실은 없는지요?

정연주 아니요. KBS가 사투리 보급은 못합니다. 우리가 표준어를 쓰야 하고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악센트가 센 편인데 저는 그래서

방송하면 안 돼요. 글은 써도 되지만. 우리 기자들 중에 지방 사투리 센 사람이 나와서 보도할 경우에는 거슬려요. 영국 영어의 표준말이 BBC 잉글리시고 일본의 표준말이 NHK 일본어인데 KBS에서 쓰는 말이 우리말 표준어는 돼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반에 있는 사투리를 공적인 사용의 언어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의 문화적인 가치로 뒤야지, 그러지 않고 공적인 표준어 영역에 들어와 버리면 표준어 정책 다 무너지는 거죠.

정종희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까?

지영서 발음의 경우에는 지방 출신자들이 불리할 수 있죠.

정연주 발음의 경우는 확실히 극복해야 해요.

지영서 하지만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설사 그렇게 자기가 구사는 못하지만 지문상 이렇게 발음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죠.

정연주 제가 극복 못하는 발음의 한계가 있거든요. ‘에’, ‘애’ 구별을 못 합니다. 시웃, 쌍시웃 발음 구분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유재원 일반음성학 세 시간만 들으시면 됩니다.

정연주 아닙니다. 안 됩니다. 혀가 굳어서요. 영어 발음 안 됩니다. 어릴 때 굳어진 영어 발음은 미국 가서 아무리 훈련받아도 안 됩니다.

김문오 방송에 출현하는 외국어의 최초 사용자가 누구일까, 그리고 이를 신속하게 쉬운 말로 다듬을 방도는 없는가 종종 생각해 봅니다. 방송 리포터나 방송 작가나 아니면 외부의 어떤 전문가의 말을 통해 방송으로 퍼지게 되는데, 이런 최초의 출처와 그 전과 경로를 추적해

서 늦기 전에 적절한 우리말을 찾도록 공적인 기구를 통해서 다듬을
방도가 없겠습니까?

정연주 우리 회사 안에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언어 심의를 하고 있
거든요.

지영서 공적인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 잘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
들이 영어 단어를 쓰면 기자들이 그 말을 받아서 따옴표 속에 그냥
넣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 얘기냐 하면서 이걸 그냥 써야 하는가 뭘로
다듬을까 하다가 결국 ‘정부 언론 외래어 심의 위원회’에 논의 자료로
가져 가는데, ‘정부 언론 외래어 심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까지
너무 늦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쓰게 된 다음에
순화어를 내놓는 게 아니라 더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봅니다.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을 한국어 능력 검정 대표 시험으로 만들 터

정종희 제가 KBS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한국어 능력 시험을 앞
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영서 올해부터입니다.

정종희 그렇게 되면 다른 기관에서도 현재 다양한 국어 시험을 치르
고 있고, 국어기본법에 보면 문화관광부 장관이 국민의 국어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은 국가적인 사업인데 앞
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과 다른 시험들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
십니까?

정연주 미국에서는 표준 시험을 민간 기관에서 다 관리하거든요.

SAT, GRE 그런 시험들 다 민간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어기본법’이 공포되었으니 국가 기관에서 국어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아마 KBS만큼 일찍부터 준비해 온 기관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이 국어 능력 검정 시험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의 표준이 BBC 잉글리시이듯이 한국의 표준말은 KBS 한국어가 될 것이고,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나운서 팀들이 1983년부터 많은 연구를 해 왔고 축적된 지식이 있고,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는 것을 벌써 2년째 실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축적된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에 우리보다도 더 정확하고 우수한 시험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저는 그 면에서는 자신 있습니다.

정종희 한국어 능력을 검증하는 대표 시험으로요?

정연주 대표 시험이 되게 만들 자신도 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유재원 도와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연주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결국 얼마만큼 응시하시는 분들, 국민이 얼마만큼 신뢰를 주시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저는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이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한국어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축적된 지식과 경험, 우리말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쌓여 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새로 또 국가에서 기관을 만들어서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KBS만큼 오랫동안 축적하기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 사회 어디에서도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 지역서 팀장의 어깨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어요. KBS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우리말 능력 시험이 될 겁니다.

다. 앞으로 자꾸 이게 번질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지금 벌써 우리가 하고 있는 능력 시험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절로 이렇게 번져 나갈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유재원 지난해에 제가 들은 소식 중에 가장 훌륭한 소식이 이 ‘KBS 한국어 능력 평가’ 소식이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기뻐고 왜 다른 언론 기관에서 이렇게 관심을 안 보여 줄까 불만을 오히려 혼자서 느꼈거든요. ‘냉담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연주 앞으로 기업체 들어갈 때 우리말 시험 치르게 만들어야 돼요.

지영서 지방 공무원 공채할 때 지방 자치 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문제 수준이 그야말로 저희가 접촉한 몇몇 지방 자치 단체들은 KBS에서 좋은 문제를 많이 만들어서 언제라도 우리가 쓸 수 있게 해 주면 그걸 받아서 하겠다고 그러합니다.

정종희 그런 의도였으면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국어원이나 문화관광부 같은 곳과 협의해서 공동으로 만들 생각은 없으셨는지…….

지영서 저희가 처음엔 협의했어요. 협의했는데, 그쪽도 그쪽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고 국어기본법이 통과되면 하겠다고 했어요. 저희는 이미 2003년부터 한국어 능력 시험을 실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일단 우리 신입 사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 보고, ‘국어기본법’의 진행 과정을 저희가 보면서 속도를 조절해 온 겁니다.

유재원 문제를 잘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일부 대학에서 영어 시험을 봐야만 졸업장을 주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거 국어 시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정연주 두 개 다 치르게 하면 돼요. 두 개 다 치게 하는 것이 가장 적

합합니다. 국제화됐기 때문에 영어도 할 줄 알아야 하고요. 영어 잘하는 만큼 우리말도 잘해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두 가지 다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유재원 대학이 그런 시험을 자체로 개발하기는 어렵죠.

정연주 앞으로 우리 사회 전체로 이 한국어 능력 시험이 번져 나가는 게 일차적으로 제일 중요하고요. 시험 주체가 누가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그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오 KBS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정연주 그렇습니다. 국어 능력 시험이라는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 ‘아, 그런 게 있었네!’ 하고……. 우리가 신입 사원 모집할 때 텔레비전에 광고가 나가잖아요. 그때 보면 한국어 능력 시험에 대한 설명도 함께 나가거든요.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시험이 앞으로 사회에 널리 퍼지는 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KBS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말 지키려는 의식이 많이 번져 나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유재원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이 생긴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인데 조용하게 넘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영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장님은 어딜 가나 그 얘기 들으셨고…….

정연주 진짜 저 국회 쪽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영서 국어기본법 통과에 저희 시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가 국어기본법 통과를 위해서 이미경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과 국회의원들을 수시로 만나면서 왜 국어기본법이 필요한지 설명했

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몇 년 동안 끌어오던 걸 저희가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을 핵폭탄같이 치르면서…….

정연주 맞아요. 핵폭탄처럼 그게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거든요. 분화구가 크게 생겼으니까 널리 번지게 해야죠.

유재원 그래서 인터뷰도 하시고…….

지영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영어만 잘할 게 아니라 우리말도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재원 이 얘기하고 관계없지만, 앞으로 이삼십 년 후에 불리한 사람들이 영어만 하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세계화 시대에 또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유일한 사람들이 영어권 사람일 거고, 이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했을 때 불리해진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김문오 한국어 능력 시험 우수자들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말을 다듬을 때 충분히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서 앞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좋은 점수가 나왔던 친구가 과연 실제 생활에서 어떤 면을 보여 주는지 혹시 다른 면을 보여 주는지 알아볼 겁니다.

유재원 이 인터뷰가 ‘새국어생활’의 신설란 ‘이곳 이 사람’에 첫 번째 인터뷰로 들어갈 겁니다.

정연주 고맙습니다.

유재원, 김문오, 정종희 대단히 고맙습니다.